

언어·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사회 환경 촉진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해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은 이주민 개인이나 이주민 공동체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빈곤화 등의 부정적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올릴 수 있음. 특히,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사회, 경제적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전환기에 접어든 한국사회로서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생산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동화, 한국인화 중심의 정책 기조 전환 필요
 - 한국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문화사회’를 모토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특수성을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 자녀의 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야 하나, 이것이 곧 자신의 언어·문화를 버려야 하는 당위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더욱이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고유한 언어·문화를 버리고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
 - 국내외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일방적 동화 보다는 출신문화와 주류문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결혼이민자를 위시한 이민자의 심리적 안녕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결혼이민자나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해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다양성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한 다문화가족 환경 조성
 - 일상생활 속에서 결혼이민자가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 자녀의 한국어 발달에 지장을 줄지 모른다는 염려가 팽배해있으나,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을 통한 긴밀한 자녀와의 관계형성은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보다 월등히 중요한 문제임. 결혼이민자가 자신이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자녀와 충분히 교감할 때만이 자녀에게 다양한 언어적 자극이 제공되어 언어 발달이 촉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정서 발달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임.

-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언어·문화적 교감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언어 발달은 물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한국인 남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인의 언어·문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인 남편 교육 추진
 -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와 한국 문화가 일상 가족생활에서 유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 즉, 한부모-한언어 원칙(One Parent-One Language)과 같은 가족규칙 개발, 확산
- 성인지적 가족언어규칙, 가족문화규칙 개발 필요
 - 남성결혼이민자의 언어, 문화적 배경은 가족 문화의 핵심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데 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문화와 모국어는 가족 내에서는 ‘사라진 언어’, ‘사라진 문화’일 뿐이며 기껏해야 결혼이민자 ‘개인의 문화’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함. 이러한 현실에서 한부모-한언어 원칙 등의 가족언어규칙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 다문화가족의 현실에 적합한 접근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언어, 문화를 가족 문화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주류사회 인식 전환 전략 강화

- 다문화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예방하고 긍정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나, 오랜 기간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기초한 사회, 문화질서를 유지해온 한국사회로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존재를 계기로 가시화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점은 다문화가족이 언어, 문화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과 사회 전반적인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에 관해서는 소위 ‘다문화 이해교육’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주민이나 주요 출신국가·지역에 대한 단순한 정보만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어 이주민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주류사회의 우려를 전환하는 데에는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함.
- 다양성이 소수자 개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학교교육,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서도 단순 이해교육 차원을 넘어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을 강화해야 함.

3. 정책효과

- ☐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 환경 조성
- ☐ 언어·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능동적 사회통합 촉진
-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사회 전반적 수용 환경 조성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 관계부처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팀), 지방자치단체
